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태복음 8:23-24절에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하였다.

첫째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은 없었다. 그 병이 얼마나 오래 되었든지, 어떤 불치의 병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신적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고치지 못할 병은 없으셨다. 그리고 그가 고치신 병은 시간이 흘러야 낫는다든지, 잠시 병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용하여 고치는 마술이나 최면술, 심령술 같은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병의 근원을 아시기 때문에 병을 정확하게 알고 온전히 고칠 수 있었다.

둘째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 이사야 35:5-6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준 것이다.

누가복음 4:17-21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1-2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호와와의 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로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름다운 소식(good news)”(사 61:1), 곧 “복음(the gospel)”(눅 4:18)이라고 말씀하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며, 그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심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의 구원 사역이 전인적인 치유임을 보여준다. 모든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거나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원래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실 때 그것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내야 한다.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이다.

마태복음 8:16-17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가져가셔서(He carried away our diseases) 우리를 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일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 영과 혼과 몸 전체

를 구원하는 전인 구원임을 보여준다.

베드로전서 2:24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You were healed) 선언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질병이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았다고, 다 나았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온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일을 근거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의 병이 낫고,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닌가!